



**설 명절로 인한 호재**  
- 수도권 특란 기준 120원 회복전망 -

◆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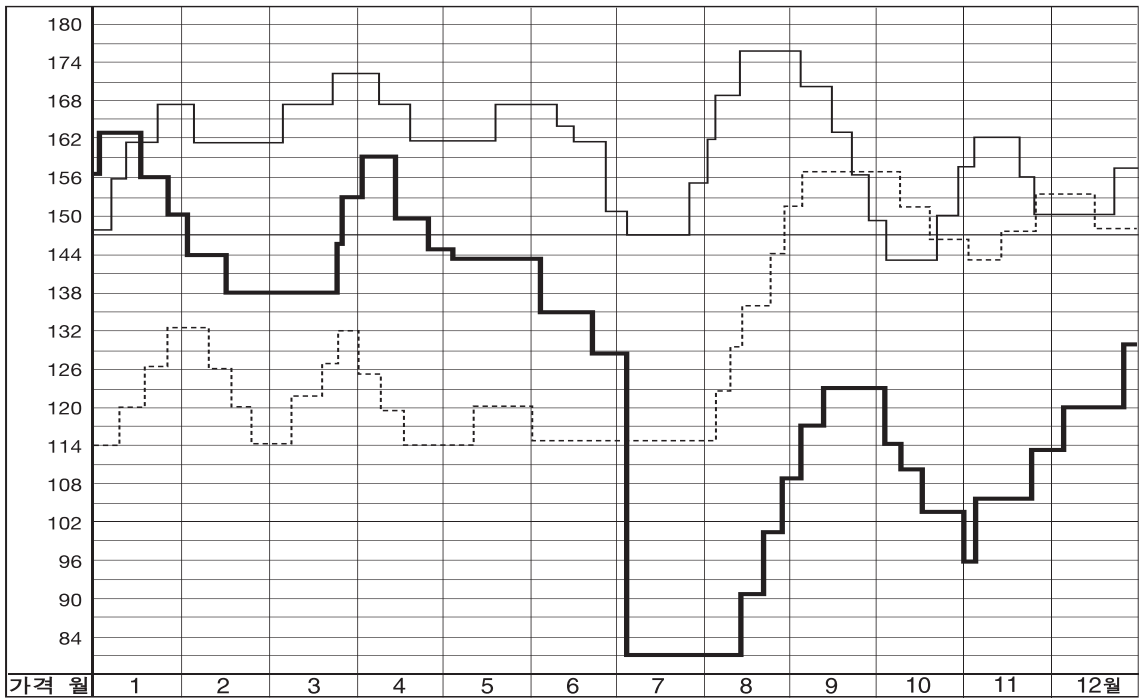
연말수요 이후 난가는 겨울방학으로 인한 급식수요 감소와 제과용 가공계란 수요가 마무리됨에 따라 12월 중순부터 하락세를 보였다. 일시적으로 약세권을 형성하던 난가는 본격적인 겨울환파가 시작되면서 계란빵 등 길거리 간식수요 증가와 찹질방 구운란 수요가 늘면서 중란이하 품목의 물량부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차츰 상승기반을 다진 난가는 2월 위치한 설 명절에 대한 수요기대가 가세하면서 지난 15일 수도권 특란 가격이 113원으로 인상되었다. 이후 전반적으로 원활한 흐름을 보이면서 난가는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 **자료분석**

12월에도 산란종계 입식마리수는 없었으며, 2012년 총 산란종계 입식마리수는 493,880수로 전년대비 25.8% 감소하였다. 난가 불안이 지속되면서 산란부화장에서도 자체적으로 병아리 생산감축을 계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산란계사육마리수는 61,344천수로 전년동기대비 1.7%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육마리수가 감소한 가운데서도 계란생산과잉으로 연중 불안한 난가흐름을 보였던 것은 산란병아리 입추마리수가 증가하면서 산란노계 도태가 상당량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이며, 전체 닭사육마리수에 신계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계란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올해 총 산란노계 도축마리수는 30,282천수로 '11년 대비 4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육추사료 생산량은 27,295톤으로 전년대비 11.6% 감소하였고, 산란사료는 181,528톤으로 전년대비 0.4% 증가하였다.

◆ **전망**

난가는 설 명절(2/10) 수요로 인해 강세를 지속하겠다. 하지만 계군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난가는 120원선을 회복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겠다. 산지에서 큰알 물량은 다소 여유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큰 폭의 상승세를 기대하긴 어렵다. 1월부터 산란부화장에서 입란을 증지하기로 하였다. 병아리 공급량이 월 300만수 이상을 유지하면서 난가 불황이 당장 내년 상반기까지도 회복되기 어려워보여 병아리 분양마리수 감축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병아리 감축분양 소식에 병아리 입추를 서두르거나 감축분양 이후 급격한 병아리 입추수요가 생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장기적으로 적정생산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2012.7.6 계란가격 현실화 차원 D/C폭 47원 줄임 **특란기준 계란가격(개당)** 2010-- 2011- 2012 -

▶ 병아리·사료·계란생산(잠재력) 및 가격

월	연도	총 계 입식수 (수수)	실용계 생산수 (천수)	사료(천톤)		산란 실용계 (원)	서울 특란가격 (10개원)
				육추	산란		
1	2009	0	2,895	22.6	163.9	1,050	1,553
	2010	34,000	2,570	25.3	169.4	1,100	1,224
	2011	11,000	2,380	27.1	181.0	1,200	1,595
	2012	20,000	3,313	29.8	175.8	1,338	1,589
2	2009	48,300	2,894	20.1	144.5	1,050	1,374
	2010	33,896	2,338	23.9	156.4	1,150	1,246
	2011	0	1,659	22.5	154.6	1,336	1,629
	2012	0	3,127	29.6	163.3	1,300	1,417
3	2009	43,500	3,294	25.1	168.1	994	1,420
	2010	71,396	3,299	25.7	174.8	1,150	1,235
	2011	65,600	2,317	24.1	173.7	1,450	1,676
	2012	10,600	3,296	31.2	177.4	1,272	1,420
4	2009	109,368	2,808	27.2	164.5	917	1,455
	2010	56,000	3,178	28.1	169.4	1,122	1,176
	2011	61,500	2,196	22.0	167.9	1,438	1,670
	2012	137,520	3,245	29.2	171.0	1,239	1,528
5	2009	0	2,519	26.5	157.5	850	1,597
	2010	52,000	2,606	27.8	165.7	956	1,179
	2011	128,092	2,959	23.9	171.9	1,450	1,625
	2012	50,000	3,686	32.0	172.3	1,200	1,405
6	2009	71,300	2,956	26.8	156.2	892	1,448
	2010	0	2,419	29.2	154.8	900	1,152
	2011	85,300	2,958	25.9	163.0	1,450	1,614
	2012	0	3,281	30.1	163.6	1,175	1,332

※2009년 11, 12월 실용계 생산수 변경

7	2009	60,500	3,077	29.3	146.7	1,100	1,255
	2010	29,700	3,202	25.9	156.9	928	1,200
	2011	0	2,871	25.3	149.1	1,450	1,495
	2012	0	2,700	28.6	158.5	1,150	886
8	2009	60,800	3,154	23.8	156.6	983	1,279
	2010	42,000	2,368	23.3	149.9	950	1,313
	2011	49,080	2,644	28.5	170.0	1,450	1,706
	2012	84,000	2,850	27.3	159.2	1,028	911
9	2009	56,000	2,598	27.1	173.3	1,041	1,386
	2010	45,000	2,600	24.3	162.4	1,000	1,558
	2011	83,200	2,516	28.5	162.9	1,450	1,625
	2012	52,000	2,347	24.9	167.5	1,050	1,195
10	2009	77,028	3,051	27.0	160.3	1,050	1,248
	2010	80,800	2,822	25.8	165.5	1,050	1,501
	2011	43,500	2,955	28.1	166.2	1,450	1,454
	2012	94,000	3,105	26.2	170.8	1,080	1,095
11	2009	10,580	3,076	26.0	162.0	1,050	1,167
	2010	43,000	3,134	26.9	170.7	1,133	1,458
	2011	96,692	3,086	27.8	169.3	1,450	1,580
	2012	0	3,526	26.7	168.8	1,100	1,095
12	2009	11,000	2,813	26.5	180.6	1,083	1,212
	2010	47,600	2,962	28.7	184.3	1,172	1,504
	2011	41,600	3,697	30.9	180.8	1,439	1,515
	2012	0	3,721	27.3	181.5	1,100	1,713
계	2009	517,576	35,260	304.6	1,944.4	990	1,361
	2010	538,692	32,761	316.4	1,980.8	1,052	1,308
	2011	665,564	32,238	314.5	2,010.0	1,418	1,599
	2012	493,880	38,198	343.1	2,029.7	1,169	1,299